

필리핀의 201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작성자 : 신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작성일 : 2013년 09월 06일

■ 필리핀 정부는 2013년 7월 23일에 빈곤 감소, 포괄적 성장, 예산집행 투명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필리핀의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13.1% 증가한 약 2조 3천 억 페소(약 512 억 달러)¹⁾임.
- 최근 필리핀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빈곤율은 20%를 상회함에 따라 아키노 정부가 소외계층에 대한 조건부 현금지급, 보건 및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키고자 함.
- 필리핀 정부는 교통 인프라 확충, 농업 및 농촌개발,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포괄적 성장을 꾀함.
- 위 정부는 성과중심 예산집행, 부처별 예산집행내역 공시 의무화 등의 조치를 통해 예산집행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함.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부문별로는 사회서비스와 경제서비스 부문에, 주요 부처별로는 교육부와 공공건설부에 예산이 집중되었고 금액 또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부문별로는 인프라 확충, 교육 부문 지원 등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고 제조업·농업·관광산업 등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경제서비스 부문에 대한 예산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1) 달러당 44.33페소, 2013.09.05 14:58 42회차 외환은행 고시 기준.

표 1. 필리핀의 2013~14년도 부문별 예산(안)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안		예산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사회서비스	15.8	34.9	19.0	37.2	20.5
경제서비스	11.5	25.4	13.3	26.0	15.9
일반 공공서비스	7.8	17.3	8.2	16.1	5.0
채무상환	7.5	16.6	8.0	15.5	5.6
국방	2.0	4.5	2.1	4.1	3.7
총부채	0.6	1.3	0.6	1.1	-5.8
합계	45.2	100.0	51.2	100.0	13.1

주: 폐소 표시 예산을 저자가 달러 환산.

자료: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ttp://www.gov.ph>).

- 주요 부처별로는 교육부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2012년부터 학제가 개편(K-12)²⁾됨에 따라 학교 건설, 기자재 보급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임.
- 필리핀은 도로, 교량 등 교통 인프라가 미비하여 제조업 발전,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가 공공건설부를 통해 인프라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표 2. 필리핀의 2013~14년도 주요 부처별 예산(안)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안		예산 증가율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교육부(DepEd)	6.62	1	7.60	1	14.9
공공건설부(DPWH)	3.44	2	4.82	2	40.1
내무자치부(DILG)	2.75	3	3.05	3	11.2
국방부(DND)	2.74	4	2.78	4	1.2
보건부(DOH)	1.35	6	1.96	5	45.5
농업부(DA)	1.69	5	1.82	6	7.6
사회복지개발부(DSWD)	1.27	7	1.78	7	40.0

주: 폐소 표시 예산을 저자가 달러 환산.

자료: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ttp://www.gov.ph>).

- **필리핀의 2014년도 예산안은 빈곤 감소 및 고용창출을 통한 포괄적 성장이라는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며 이를 위한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음.**

- 이번 예산안은 아키노 정권의 정책과제와 일맥상통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향후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임.

2) 필리핀의 기존 학제는 대부분 국가보다 2년 짧은 10학년제(초등교육 1~6학년, 중고등교육 7~10학년)였으나, 필리핀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확대 등을 위해 2012년부터 12학년제(초등교육 1~6학년, 중등교육 7~10학년, 고등교육 11~12학년)를 시행하였음.

- 향후 필리핀 내 교육시설 및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은 해당 분야에 단독 혹은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겠음.

〈자료: 필리핀 예산기획부(DBM), 필리핀 대통령실, *Philippine Daily Inquirer* 등〉